

다산포럼



권순국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요즘 영부인 김건희 여사(‘김여사’로 통칭)의 검찰 비공개 ‘특혜조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보고를 받고 이른바 수사팀으로부터 ‘패싱’ 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 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다.

그 대목에 등장한 말이 ‘법불아귀(法不阿貴)’다. ‘한비자(韓非子)’ ‘유도(有度)’편에 나오는 말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뒤에 ‘승불요곡(繩不撓曲)’이 붙어 “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막졸은(나무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고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에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한 말이다. 법원 앞에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상(像)도 바로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 해서 검찰총장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여사의 혐의는 2009년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최근 불거진 명품백 수수 의혹이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4년간 검찰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

“법(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가 최근 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들이대니 서둘러 수사에 착수하여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당연히 피의자인 김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야 하는데, 공휴일인 20일에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로 검사들을 거꾸로 ‘소환’해 조사를 받았다. 게다가 조사받는다든 게 알려지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며 검사들의 휴대폰을 모조리 ‘압수’하기도 했다. 누가 누구를 조사한 건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혁신위원장은 23일 새벽 전격 구속됐으니, 어찌 된 일인가?)

이미 지난 5월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고 수사팀장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상식선에서 봐도 김여사 수사에 대비한 인사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패싱’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에 중앙지검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거절하며 중앙지검장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다. (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기에 이해 충돌로 시행된 것인데, 지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니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에서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언급하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운동으로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필인베스트 대표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징형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인물로, 이미 1심 법원은 블랙필인베스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한 바 있

다. 그러나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구마 즐기처럼 어디까지 얽혀있을지 알 수가 없다. (검찰총장은 이제부터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더욱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부부장 검사마저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으니 누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는가? 그러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최근 한 보수논객은 MBC에서 김여사 ‘특혜수사’를 비난하면서 국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층의 나무가 성장개비 하나 때문에 불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현 정권이 그것이 부패망이 되어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TV조선’ 앵커조차 저녁 뉴스 ‘앵커클럽’에서 김여사 조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을 두고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할 정도다. (차라리 기회에 김여사 전례에 따라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받을 수 있게 하지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다산은 ‘부형 도호부사 이종영에게 당부한다(送富寧鄭誼李鍾英赴任序)’란 글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대간(臺諫)을 두려워해야 하며, 더 위로는 조정(朝廷)을 두려워하고, 또 더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 그러나 백성과 하늘은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임하고 몸으로 거느리고 함께 호흡하고 있으니, 잠시도 떨 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것이다. 무릇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수사가 어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청춘 특독



김해리  
동신대 한의학과 1년

10대 때에는 막연히 대학 생활에 대한 낭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20대가 시작되는데 기대감, 드디어 성인으로서 자유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해방감에 설레기도 했지만, 긴긴 코로나19의 시작과 함께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왔다.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이지만, 나 자신에게 믿음은 특별하게 다가오는 존재론적 방향을 겪으며, 여전히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 아우렐리우스 명사록의 명언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 유행하던 노래 ‘말하는 대로’의 가사처럼 내 인생이 온전히 나에게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막상 두렵지만,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던 즈음에 명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마음챙김이란 뭘까. 내가 이해한 마음챙김의 개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과보다는 과정 지향적인 태도로 내가 처한 맥락과 그것의 가변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맥락을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주의를 집중하는 데서부터 상황의 본질에 가까워지면서 문제의

‘마음챙김’에 관한 짧은 생각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통제력과 여유가 생긴다.

그렇다면 마음챙김은 나에게 어떠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을까? 마음챙김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크게 3가지 변화가 생긴다. 첫째로, 새로운 범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천장의 전구 교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보통 키가 큰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쩌면 키가 작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사다리 위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담력이 있다면 말이다. 우리는 보통 신체적인 장애를 개인의 능력 결핍으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소음에 있는 업무 환경이라면, 청각장애가 있는 유능한 개발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다른 개발자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변하는 맥락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설정된 범주에 의지해 단순히 표면적인 기술만 고려하면 이런 이점들을 놓치게 된다.

두번째로,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게 된다. 아직 나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이런 자세가 발전하면 내가 아는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만을 안다’는 말을 체화하게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나와 동업한 A에 대해 평소대로 안고하고 고집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치자. 하지만 자신만의 철칙을 지키고자 하는 A의 작은 노력들을 인지하면서부터 그를 오히려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동업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놓침의 상태에서는 상황 혹은 사람을

내 관점 안에 가두고, 마치 그것이 불치병이라도 걸린 양 감정들을 놓치게 되고, 결국 그 상황 혹은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

세번째로, 내 상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부족한 면을 상황 탓으로 돌리곤 한다. 예를 들면, 나는 그저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동업자 A가 나에게 무례하다고 했다고 해보자. 실제로는 이 상황에 있었던 관찰자 수만큼의 관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내 관점에서만 감정을 키우게 되면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러 관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너와 나 모두 옳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먼저 내가 한 행위가 내가 원했던 효과를 나타냈는지 돌아보게 된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때문에 저명한 신경학자나 심리학자의 통찰을 찾게 되고, 또 새롭게 시야로 들어와서 마음에 닿게 된다. 지금 우리는 서점에 가거나 유행하는 교양 프로그램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어깨에 쉽게 오를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심오한 개념들 속에서 가장 즉각적인 시작점은 나의 마음을 챙기고 내 몸과의 상호작용에 주시하는 것이다. 바로 그 행동에서부터, 내가 일에서 저지르는 온갖 어불한에 대한 실질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청년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불안정한 아름다움과 찬란한 패기에 감사하면서 슬기롭게 자신을 그려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는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땅을 파고 달란트를 감춰 두었을 뿐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달란트는 ‘Talent’로 해석이 되고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뜻한다. 이 비유에서는 달란트 개수는 개인별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며, 중요한 것은 달란트 개수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였느냐에 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재능(달란트)을 땅에 묻혀 두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승업은 프로 입단 당시 투수 유망주였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따라다니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타자로 전향했다. 전환(轉向·convert)의 사전적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이다. 이승업 선수는 한국과 일본 리그를 합쳐 23년간 선수 생활 동안 627개 홈런을 치며 ‘국민타자’라는 명칭을 얻었다. 은퇴 후 기자 회견에서 “만약 제가 투수로 남았으면 평범하게 은퇴하고 지금쯤 유소년 선수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타자 전향은 천운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지를 한다면 빨리 전향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변화경영전문가 구본형의 칼럼에 “다른 사람이 시키는 원칙 없는 일을 하며 평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기를진

저녁 한 상을 벌기 위해 자유로운 시간을 팔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어 산다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직급이나 명함에 새겨진 직함이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회사에 다니는 시간을 통째로 맡기고 살아가는 직장인은 연극 무대의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배우는 대본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고 연극이 끝나면 분장을 지우고 무대 위에서 객석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때부터가 진짜 나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구본형은 또 이렇게 말한다.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나의 삶을 즐길 것이다. 언젠가 그 하루 전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어쩌면 삶은, 온통 자유로운 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를 얻기 위한 싸움과 인내인지 모른다. 나는 오직 내가 되어, 60억 인류 속에서 서로 갈지 않은 하나로 살아가고 싶다. 그때 신은 나에게 ‘자신이 허락할 유일한 인생을 낭비한 죄’를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며, 그곳에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맘껏 발휘하며 삶의 의미와 보람을 키우고 가꾸는 일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바뀔 수 있고 더 잘하는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 내가 삶의 주인공인데 못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발견한 달란트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성장시킨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 영향력을 주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죄책감을 들지 않을 것이다.

社說

공공 배달앱 지역 상인에 실질적인 도움돼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이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 민간 앱의 경쟁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을 독점한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 맞서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배달 앱 ‘위메프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땡겨요’를 추가 도입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인 ‘리브택시’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전남도는 2022년 배달 앱 ‘떡깨비’를 출시한 상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위메프오’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9300여개 가맹점과 누적 주문 122만건, 누적 매출액 306억원을 8기특했으며 지역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4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 6월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0.54%,

‘요기요’ 15.42%, ‘쿠방이츠’ 16.70%, ‘위메프오’, 12.41%, ‘땡겨요’ 5%로 공공앱이 차지하는 비율이 17.41%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공공 앱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격적인 할인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지속적인 홍보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공 앱의 성과를 내고 있는 대구시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 하다. 2021년 배달 앱으로 시작한 ‘대구로’는 현재 택시 호출, 전통시장 장비기에 이어 이번 달부터 전국 최초로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까지 추가하며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을 ‘대구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정부가 전국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광주시는 목표로 삼고 있는 공공앱 점유율 30% 달성을 위해 지난해 13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든 예산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비한 친환경 농법 개발 시급하다

전남은 친환경 농업 1번지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친환경인증면적은 3만 5417ha로 전국의 51% 규모다. 품목별로 벼가 2만 2018ha, 벼 이외 품목은 1만 3399ha다. 지난 1999년부터 친환경 농업에 매진한 전남도는 벼와 과일, 채소 등 수십 여 작물을 다양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중 벼와 관련된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의 하나인 ‘우렁이 농법’이 오히려 벼의 생육을 해치고 있다고 한다. 눈에 자라는 풀을 농약으로 없애는 대신 왕우렁이가 먹어 치우는 게 핵심인데, 개체 수가 급증한 우렁이가 풀뿐만 아니라 어린 벼까지 갹아먹는 바람에 농법 자체를 손바야 할 상황에 처했다.

우렁이 농법은 눈에 모를 심고 난 뒤 제초제 대신 우렁이를 투입, 잡초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동력·경영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재배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겨울에 죽어야 할 우렁

이가 살아남는 데다 개체 수가 증가, 봄철에 잡초와 어린 모까지 갹아먹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 집계에 따르면 피해 농가는 9개 군에 5034ha에 달한다.

결국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직접 우렁이를 수거하거나 우렁이 알을 퇴치하기 위한 살충제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왕우렁이 퇴치를 위한 약품비로 5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달 한 달을 왕우렁이 알제 수거기간으로 정해 우렁이 제거에 나선 상태이다.

수십억 원을 투입해 성공을 거둔 우렁이 농법이 이제는 왕우렁이로 인해 벼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기후 변화는 모든 자연환경을 바꾸고 있다. 냉해에 약한 감자 품종의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농민들이 대책을 호소할 적도 있었다. 전남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씨와 온도 변화에 따른 모든 작물의 생육을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無等鼓

“이게 과연 나라인가?”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0년 전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언론사 기고를 통해 이렇게 물었다. “...한국 사회는 꼬리 자르기가 법치와 책임의 보통명사가 됐다.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건들도 처벌은 항상 실무급들 몫이었고, 책임자는 권력의 보호 속에 건재했다. ...공직사회의 책임 윤리는 파탄나고 대통령의 어떤 영(令)도 서지 않으며 사회는 온통 권력과 돈의 힘만 난무해 온 모습의 압축판이 세월호 침몰과 사후 대처가 폭로하는 한

수에 대한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행태에,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잇따라 거부될 때 ‘이게 나라냐’는 질문이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올라왔다. 변주도 다양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때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임의로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자 ‘이 나라가 네거냐’, 검찰 출신 인사들로 대통령령의 어떤 영(令)도 서지 않으며 사회는 온통 권력과 돈의 힘만 난무해 온 모습의 압축판이 세월호 침몰과 사후 대처가 폭로하는 한

‘이게 나라냐’

한국 정치사의 유행어  
가 된 ‘이게 나라냐’는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격적인 유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다. ‘이게 나라냐’라는 보다 대중화된 문구로 바뀌면서 광범위하게 퍼졌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정치·사시뿐 아니라 ‘이게 회사냐’, ‘이게 사과냐’ 등으로 쓰임새가 확대됐다.  
현 정권에서도 비슷했다. 대한민국 수도 한 북판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책임 지지 않는 정부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면서, 후쿠시마 오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 파문이 일 때는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보수 패권이 중앙지검장을 향해 “당신이 검사냐”고 물었다.

다. 역대 대통령과 그 가족 등 누구도 검찰청 소환 조사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김 여사만 예외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면서이다. 최근 일본이 ‘강제 동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정치·사시뿐 아니라 ‘이게 회사냐’, ‘이게 사과냐’ 등으로 쓰임새가 확대됐다.  
현 정권에서도 비슷했다. 대한민국 수도 한 북판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책임 지지 않는 정부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면서, 후쿠시마 오염

기고



김석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영화 ‘빠빠용’에서 주인공은 살인죄 누명으로 종신형을 받고 여덟 번이나 탈옥을 하며 누명을 벗으려 한다. 어느 날 꿈속에서 사막 학가운데를 걷는 그는 재판관과 배심원들에게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장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죄다. 너를 기소한다. 인생을 낭비한 죄로.”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빠빠용은 말없이 돌아선다.

“인생을 낭비한 죄?” 진정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여기서 낭비란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씌’를 의미한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인생을 낭비하는 죄에 해당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각각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장사를 시작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넘겨서 “착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洸洸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